

Management System for School Safety Education: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Issues

Taek Hee Cho^{1#}, Min Ki Bae²⁺

¹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 Korea

² Chungbuk Research Institute, 102-1, Daeseong-ro, Sangdang-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chool safety education in Korea and propose various improvement issues. The legal content of school safety education was mainly concerned with the handling and compensation of accidents. School safety education had only quantitative standards without any qualitative evaluations. Middle and high schools had a higher percentage of non-homeroom teachers than elementary schools. Many middle schools set aside "school safety teachers", but few elementary schools had them. Based on these analyses, the study suggested various improvement issues such as legal maintenance, governance establishment, expertise reinforcement, statistical DB building, and a consultative body for related agencies for the development of school safety education.

Key words: safety education, school education, disaster, teacher training

1. 서론

1. 연구의 배경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자연재난이 주를 이루었지만 도시화·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재난발생 요인도 다양해지고 발생빈도와 강도도 커지고 있다. 예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폭염을 비롯하여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의 자연재해도 과거보다 그 정도가 심화되거나 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미세먼지, 교통사고, 건축물 붕괴를 비롯한 산업재해 등, 재난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더불어

어 2014년의 '세월호 사고'는 국민의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수 백 명의 어린 학생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사고'는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을 전 국민이 몸소 체험하게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위험성 상존, 건축물의 노후화·고층화·대형화로 인한 위험요인 증가, 초고령화, 외국노동자 증가 등 안전 취약계층 증가, 국경을 넘는 신종재난 증가, 복합재난 및 산업화에 따른 특수재난 증가, 항공·선박·기차 등 고위험 내재적 이동수단 사

[#] The 1st author: Taek Hee Cho, Tel. +82-43-261-2704, Fax. +82-43-273-2673, e-mail. choth@cbnu.ac.kr

⁺ Corresponding author: Min Ki Bae, Tel. +82-43-220-1127, Fax. +82-43-220-1199, e-mail. mkbae@cri.re.kr

용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미래에는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또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난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지는 방법은 사전적인 예방과 사후적인 대처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인간의 직접적인 행동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안전을 위한 법률, 행정조직 등 제도적인 것은 물론 안전 기계나 기구 등의 장비도 최종적으로 이를 운용하는 인간이 능력에 따라 대응력이 좌우된다. 따라서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능력 제고를 위해 이에 대한 지식 및 행동요령 등의 교육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안전교육 중에서도 ‘학교안전교육’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 먼저 공간적 의미로서 학교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단일 기관으로 많은 인원이 모여 있기 때문에 대형 재난 및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피교육자인 학생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모두 미성숙한 단계로 재난 및 사고에 취약하다는 측면에서도 위협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안전교육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개인의 발전을 돕는 본질적인 ‘교육’의 기능 때문이다. 즉, 교육을 통해 개인은 자아실현은 물론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거치는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국가는 물론 개인의 평생 위협에 대한 예방과 대처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안전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관계된 연구는 주로 안전사고의 원인이나 피해의 추정, 재난·재해의 관리 등 안전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안전교육’ 측면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안전교육을 주제로 연구된 경우에도 주로 국가단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정착에 따라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지역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직접 주민 및 학생을 접하는 최종 정책수행자라는 측면에서 지역의 역할 및 영향

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및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지역차원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안전교육이 독립된 연구 분야로 구분되어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으로 이전에는 보다 광범위한 ‘안전’을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안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공학적 접근에 바탕을 둔 산업재해 관련 연구가 많으며 상대적으로 인문·사회적 관점에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비공학적 관점의 연구로는 초기에 ‘안전성’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활발하였다. Kim(1980), Jeon(1980), Lee(1980) 등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당시의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은 ‘안전교육이 필요하다.’의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Jung(1980), Kwon, *et. al.*(1985)의 연구에서는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이후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어 Park(1990), Park(1995)는 산업화에 따라 증가하는 안전사고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Lee(2002)와 안전관리의 책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정부에 있다고 보고 국가 관리체계로서 재난·안전 대책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학교안전교육의 필요성 및 실태를 파악하려는 연구로는 Choi & Jeon(1998)가 있으며, Park(1998)은 학교에서의 안전사고와 교통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00년대 까지도 지속되었다. 건설·산업 분야나 교통안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Park, *et. al.*(2010), Oh & Lee(2010)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나 경주·포항에서의 지진 발생 등 국가적 재난 사례를 겪게 되면서 Jung, *et. al.*(2014), Chae(2017) 등의 연구처럼 안전교육의 관심사는 방재부문을 포함하는 범위로 확장되었으며, Oh(2017), Cho(2017)의 연구와 같이 이론형 교육에서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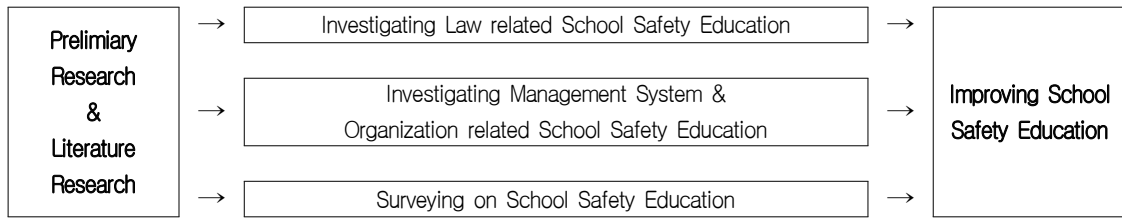


Figure 1. Analysis framework of this research

협형 교육에 대한 연구로 옮겨 갔다. 이와 동시에 국내의 안전(교육) 문화를 점검하는 취지의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안전교육에 접근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Han(2014), Kim(2015)는 안전과 관련된 교육제도 및 법제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Sim(2015), Cho & Jung(2015) 등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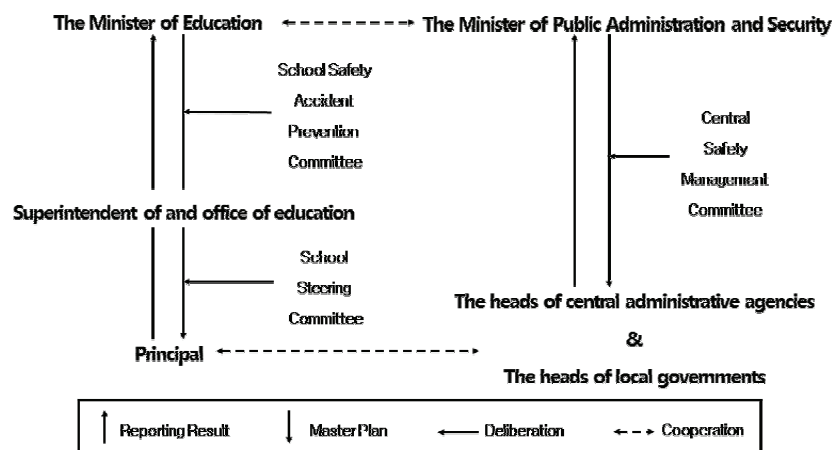
학교안전교육과 관계된 분야는 법령, 조직, 교재, 시설 등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하나의 연구주제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학교안전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구 주제로 직접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기초연구의 성격으로 우선 정책을 집행하는 시스템과 관계된 현 관리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관리체계는 다시 ‘법’과 ‘조직 및 제도’로 나누어 현재 학교안전교육 시스템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교육 실태를 충북을 대상으로 교육청 자료 및 실제조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다 나은 학교안전교육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며 이러한 분석들을 <Figure 1>로 표현할 수 있다.

II. 학교안전교육 기관 및 조직

1. 학교안전교육 기관 및 역할

모든 정책은 담당 기관 및 조직에 의해 집행과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기관과 조직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에 의해 성과가 영향 받는다. 학교안전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관으로는 크게 ‘교육’과 관련된 기관과 ‘안전’과 관련된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그리고 각 급 학교가 있으며 ‘안전’측면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서이며 지방의 도청 및 각 시·군청과 업무연계가 이루어진다. 기관별 역할 및 기관 간 협조 등은 관련 법령으로 규정되어있으며 이를 도식화 하면 <Figure 2>과 같다.



* Source: Act on Prevention and Compensation against Safety Accidents in School &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Safety Education for Citizens.

Figure 2. Managing system of safety education in schools

Table 1. Statute and subject of safety education plan

Plan Name		Subject	Cycle (Year)	Statute
Master plan	for prevention Safety Accidents in School	The Minister of Education	3	Article 4, (1). ACT ON PREVENTION AND COMPENSATION AGAINST SAFETY ACCIDENTS IN SCHOOL
Region Plan		Office of Education	1	Article 4, (5). ACT ON PREVENTION AND COMPENSATION AGAINST SAFETY ACCIDENTS IN SCHOOL
School Plan		School	1	Article 4, (6). ACT ON PREVENTION AND COMPENSATION AGAINST SAFETY ACCIDENTS IN SCHOOL
master plan for safety education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5	Article 5, (1),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SAFETY EDUCATION FOR CITIZENS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유사시 대처를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교육부장관은 3년 주기로 기본지침이 되는 ‘학교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는 ‘학교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이 1년 주기로 수립한다. 실질적으로 학교안전교육의 직접적 담당기관인 각 급 학교에서도 매년 ‘학교안전사고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담당부처인 교육부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계획이며 국민안전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에 의거하여 ‘안전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Table 1>).

학교안전과 관계된 계획은 완성도와 실천력을 높이

기 법률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학교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각 급 학교에서 수립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은 ‘학교운영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에서 수립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은 심의에 대해 따로 규정한 바가 없다. 교육부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안전교육기본계획’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다(<Table 2>).

학교안전계획의 실천력을 높이고 평가를 통한 점검을 위해 매년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학교안전사고예방 학교계획’에 따른 실적은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에 보고를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진행되는 ‘안전교육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고를 하게 된다. 이

Table 2. Plan and deliberation committee for school safety

Plan	Deliberation Committee	Statute
Master Plan for prevention Safety Accidents in School	School Safety Accident Prevention Committee	Article 4-2, (1), ACT ON PREVENTION AND COMPENSATION AGAINST SAFETY ACCIDENTS IN SCHOOL
School Plan for prevention Safety Accidents in School	School Steering Committee	Article 4, (6), ACT ON PREVENTION AND COMPENSATION AGAINST SAFETY ACCIDENTS IN SCHOOL
Master Plan for safety education	Central Safety Management Committee	Article 5, (1),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SAFETY EDUCATION FOR CITIZENS

Table 3. Statute about submitting the outcomes of promotion of safety project

Project	Subjects	Cycle (year)	Statute
The result of school-plan	Superintendent of and office of education	1	Article 4, (7) ACT ON PREVENTION AND COMPENSATION AGAINST SAFETY ACCIDENTS IN SCHOOL
The outcomes of promotion of safety education based on implementation plans and the result of self-evaluation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1	Article 7, (2),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SAFETY EDUCATION FOR CITIZENS
Annually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1	Article 10-3, (1)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Table 4. Statute about interagency cooperation

Cooperation (A Request B)		Statute
(A)	(B)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rticle 8, (1)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SAFETY EDUCATION FOR CITIZEN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e heads of relevant public institutions and human resources specializing in safety education	Article 8, (2)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SAFETY EDUCATION FOR CITIZEN
The Principal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e Chief of Police	Article 10-2, (3) ACT ON PREVENTION AND COMPENSATION AGAINST SAFETY ACCIDENTS IN SCHOOL

외에 국민안전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경우는 평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업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후속 사업예산 결정에 있어서 고려요인이 된다(〈Table 3〉).

재난, 사건, 사고 등은 다양한 분야에 연관되어 있어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기관 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원활한 사고예방 및 대처를 위해 법률로 유관기관 간의 협조를 명시하고 있다(〈Table 4〉).

안전관련 주무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 공공기관장과 안전교육 전문인력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학교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실시기관인 각 급 학교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학교안전교육과 관련된 법령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법률은 대부분 학교에서 행해지는 안전교육 자체에 대한 명시가 아닌,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의 예방이나 대처, 결과의 처리 등의 행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규정은 최근에 제정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에서 명시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육내용으로서 ‘안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법령은 행동의 지침이 되고 상

벌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선진국의 경우도 학교교육 관련법령에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안전교육을 통한 국민의 안전한 생활 영위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 ‘안전교육’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학교안전교육 담당 조직

1) 광역자치단체

모든 정책은 행정기관을 통해 시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떤 정책에 대한 행정조직의 규모와 구성원의 자질, 조직체계 등은 정책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교안전교육’의 직접적인 교육기관인 시·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의 학교안전교육 담당조직을 살펴보았다.

학교안전교육의 담당 조직에 대한 조사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방문조사 및 관계자의 인터뷰 등이 필요하나 시간적·물리적 제약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홈페이지 상에 정보제공이 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게재되는 등에 따른 오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과거에 비해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주기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가 관리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사된 광역자치단체의 학교안전교육 관련 조직을 〈Table 5〉에 정리하였다.

담당부서는 ‘국’단위는 대부분 ‘교육국’에서 관할하

Table 5. Status of competent administrative office about safety education by region

Region	Office (Bureau)	Division (Department)	Team	Members					
				Secretary	Supervisor	Inspector	Action officer	Teacher	ETC
Chungcheongbuk-do	Education	Physical, Health and Safety	School safety	1		1	4	1	
Seoul-Si	Planning & Coordination	Policy and Safety Planning	Safety management	1		1	4		1
Jeollanam-do	Education	Students Life Safety	Student Safety	1		1	5		4
Jeju-do	Education	Students Safety	Student Safety		1	1	2		
Gangwon-do	Education	Education Safety	Student Safety		1	2	2	1	
Sejong-si	Education Policy	Students Life Safety	Student Safety	1		1	6		
Incheon-si	Education	School Safety Education	Safety Education	1		3	3		
Daejeon-si	Education	Student Life Education	Safety Education	1			1	1	
Ulsan-si	Education Policy	Student Life Education	Students Life Support	1			3		
Gyeonggi-do	Safety support	Prevention of Disaster	Preventive education	1		1	2	1	
Chungcheongnam-do	Education Administration	Safety Coordination	Safety Planning	1		1	4		
Gyeongsangnam-do	Education	Student Life	Character education		1	5	3		8
Jeollabuk-do	Policy & Public Information	-	Student Safety Management Support group	1		2	3		
Gwangju-si	Education	Democratic Human Rights Life Education	Student Life Education		1	3		2	
Daegu-si	Office of Education Safety	-	Education Safety	1		1	3		1
Gyeongsangbuk-do	Planning & Coordination	-	Education Safety Group	6(Private Status)					
Busan-si	Planning & Coordination	-	School Safety	1		2	3		

※ Source : Organization Chart(Searching in June, 22, 2018)
 note 1. 'Team' means minimized group.
 note 2. Supervisor contained Educational Researcher in Jeju.

고 있었으며 '과'단위의 명칭은 '학생생활'로 명시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학생생활교육'과 '학생생활안전'이 혼용되고 있다. 광주외의 경우 '인권'이 명시되어있다. 이 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당국은 학교안전교육을 학생 생활지도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체육과 보건과 연 관 지어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팀 단위의 명칭 은 구체적으로 '안전'이나 '교육'이 명시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직의 인원수는 업무의 양과 정책의 중요도 등과 연 관되는데 안전교육담당 부서의 직원 수는 경남이 가장 많고 대전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홈페이지 상의 직원 수로 조사 된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지역별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등이 상이하어 단순히 표에 정리된 인원수로 지역을 비교하는 것은 무

리가 있을 수 있다. 각 교육청의 학교안전교육 담당부 서 책임자는 행정직을 두고 있는 경우와 교원을 두고 있는 경우로 양분되는데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 이 약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직이 책임자로 있는 경우는 사무관 이상 급이 담당하고 있으며 교원의 경우는 장학관이 담당하고 있다. 실무자로서는 행정직 인 경우는 주무관, 교원의 경우는 장학사 및 교사가 업 무를 보고 있다. 다만 울산은 업무 담당자가 행정직으 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광주는 장학관과 장학사만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있다. 이상으로 학교안전교육은 '교육'과 '행정' 양쪽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양쪽에서 함께 담당하기는 하지만 전반 적으로 행정직의 담당자 수가 교원 보다 많은 지역이 많은 것으로 보아 현재 학교안전교육은 교육적 측면보

다는 연관된 부수적인 행정적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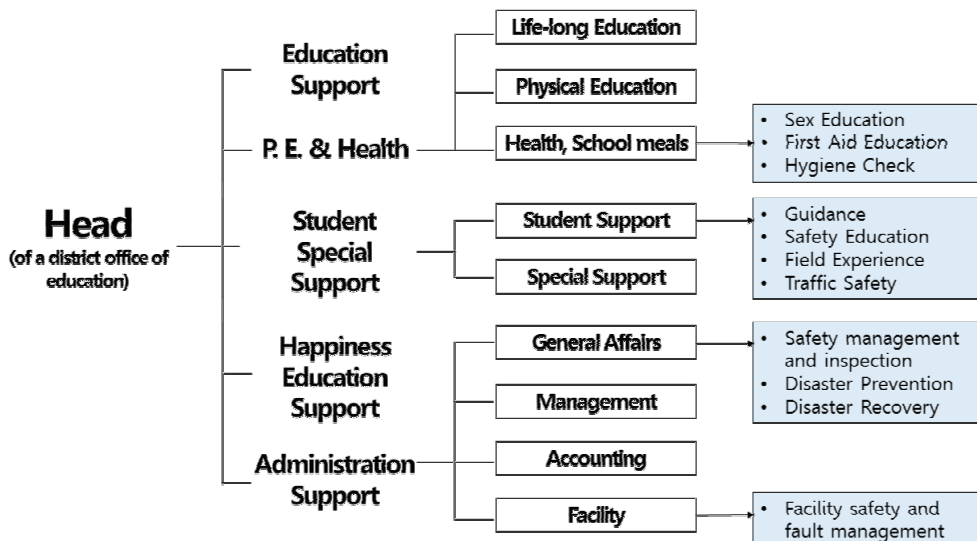
2)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기관인 광역시·도교육청이 학교안전교육의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이라면 직접적인 안전교육의 시행 기관은 기초자치단체급의 기관인 ‘시·군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많고 각 지역마다 자율성을 갖고 정책운명을 하는 관계로 모든 교육지원청을 조사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북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유는 우선, 도의 규모가 작아 조사대상 기초지자체의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초지자체가¹⁾ 있어 상대적으로 대표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청의 경우도 시간적·물리적 제약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홈페이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나 최근 정보공시제도 및 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른 가장 대중적인 정보획득 방안 중의 하나임을 감안하면 대표성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 시·군 교육지원청은 관할 지역 학생규모에 따라 조직의 규모 및 구성이 상이하여 ‘학교안전교육’담당부서도 상이하다. 각 교육지원청의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가장 규모가 큰 청주는 2국 8과(센터)로 되어 있으며 중·소도시인 충주는 5과(센터), 제천은 4과(센터), 그 외 대부분의 군은 3과(센터)로 구성되어있다. 학교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광역시나 도교육청은 부서 명칭이나 업무분장이 독립된 관리부서가 명시되어 있으나 시·군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다. 학교안전교육의 담당부서는 각 교육지원청 별로 상이하며 한 부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관리되는 경우가 많았다(Figure 3).

시 단위의 교육청에서는 홈페이지 상의 업무분장에 따르면 학교안전교육과 관계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주요부서는 두 개 정도 들 수 있다. 각 교육지원청 마다 조금 상이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교육, 교통안전 등의 분야는 학생특수지원센터에서 담당하며, 응급조치나 보건 및 급식에 따른 안전은 체육평생건강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규



Note: There are som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size and autonomy of students and teachers.

Figure 3. Generalizing organization in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in Chungcheongbuk-do

1) 충북은 3개시 7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주시는 4개 구와 함께 2017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약 83만 6천 명으로 광역시를 제외한 시 중에서는 비교적 큰 도시인 반면 충주(20만 8천), 제천(13만 6천)은 중소도시, 군 단위도 음성(9만 7천)부터 보은(3만 4천)까지 다양한 규모의 지자체가 존재함.

모에 클수록 담당업무가 보다 세분되거나 별도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보였다.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업무 성격상, 행정지원과 이외에 교육지원과의 초등교육담당과 보건급식담당에서 부분적으로 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도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시·군 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안전교육이 독립된 부서로 따로 관리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관련된 부서에 분산되어 있다. 이것은 광역교육청의 경우 학교안전교육관련 과 단위의 부서와 담당팀이 따로 운영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광역교육청에 비해 교육지원청의 조직규모가 작고 학교안전교육이 다양한 업무영역과 연관되어 있음에 기인한다. 즉, 교과에서의 교육과 비교과에서의 교육, 학교 이외의 생활에서의 안전, 교실 및 교실 외에서의 체험과 훈련,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학교시설 등 다양한 영역이 혼재되어 있는 교육지원청의 업무특성 때문에 특정 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학교안전교육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연관되어 있고 부서 간 업무영역의 불분명할 경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책임회피 등으로 재난의 예방과 대처에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세월호, 가슴기 세정제, 메르스, 등 최근 대형 국가적 재난에서 부처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키운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업무성격상 하나의 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다면 안전 및 안전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체제는 갖출 필요가 있다. 현

재 특별히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안전교육과 관계된 행정업무를 행정(재정)지원과에서 관할하는 경우가 많아 암묵적으로 총괄부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안마다 관련부서가 따로 관할하고 있으며, 부서 간 업무가 겹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업무가 처리되고 있다.

III. 학교안전사고 및 교육 현황

1. 학교안전사고 현황

학교안전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안전사고는 교육의 대상인 학생에게 일어나는 사고를 의미하며 발생 장소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관계된 어느 곳이든 가능하다. 그러나 안전사고와 관련된 통계가 학생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집계되지는 않아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 교육청에서 집계되는 통계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비슷한 수준이며 고등학교가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다. 초등학교가 6년이고 중·고등학교가 각 3년임을 감안하면 활동이 왕성한 청소년기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유치원의 안전사고는 건수는 많지 않고 최근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Table 6>).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매년 쉬는 시간(점심시간 포함)에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체육시간이 다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년 전체 안전사고의 60% 이상이

Table 6. Statistics of safety accidents in school(by level)

	2013	2014	2015	2016
Kindergarten	7,029	7,602	7,722	7,619
Elementary	35,127	37,075	38,031	38,548
Middle	34,400	39,101	39,854	37,159
High	27,861	31,941	33,704	31,943
Special	400	514	444	472
Etc.	271	294	368	336
Total	105,088	116,527	120,123	116,077

※ Source: Ministry of Education, 2017; Statistics of school safety accidents, 2010-2016.

Table 7. Statistics of safety accidents in school(by times)

	Class Time	P. E. Class	Lunchtime	Break time	Special Activity	School Events	Attending School / Coming Home
2013	15,924	29,868	19,601	18,698	6,024	9,065	5,908
2014	17,989	35,879	21,705	18,270	6,801	8,724	6,297
2015	18,335	36,708	22,382	17,281	6,998	9,976	6,298
2016	18,006	36,152	21,596	16,736	6,351	9,294	5,986

* Source: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Note: Number of Reports for Safety Accidents in School

이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으며, 실험실습과 체육시간 외의 교과수업 시간에도 매년 1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Table 7〉).

2. 학교안전교육 실태 분석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현황분석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바탕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안전교육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연구가 이루어진지가 오래지 않아 관련 통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청의 협조가 가능한 경우는 내부 자료를 활용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현황분석을 하였다.

1) 학교안전교육 실시 현황

충북의 경우 매년 안전교육 실시 시간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연간 51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다. 2017년 학교 급별로는 유치원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 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생활안전’ 교육을 가장 많이 실시하였으며 중등에서는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가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었다. 상대적으로 ‘직업안전’과 ‘응급처치’분야는 교육시간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 자율적으로 보고한 자료에 근거하는 것이라 질적 측면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즉, 교실별로 수업을 한 것과 강당 등에서 집체교육을 한 경우 모두 동등한 교육시간으로 집계된다. 또한 안전교육을 교과 수업 중에 한 것인지, 교과 외 수업 시간에 한 것인지도 알 수 없고, 학교 교사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외부에서 안전교육 전문가가 와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다. 그 외에 교실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교실 밖 또는 전문기관에서 체험교육이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등, 안전교육의 내용, 방법, 장소 등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 줄 자료가 없다. 이는 자칫 학교에서 안전교육의 내용과 방법보다는 시수에만 신경을 써 질적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Table 8〉).

〈Table 9〉는 2017년 충북의 영역별 학교안전교육 실시 횟수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시간을 보여주는 〈Table 8〉과 비교하여 숫자의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 횟수에 비해 시간이 조금 적고, 중등의 경우 반대로 횟수 보다 실시시간이 조금 크지만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유아의 경우 집중력을 긴 시간 유지할 수 없어 중등에 비해 짧은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Table 8. Average time of executing safety education in Chungcheongbuk-do in 2017.

Level	Life Safety	Traffic Safety	Prevention of Violence	Prevention of Addiction	Disaster Safety	Occupational Safety	First aid	Total
Kindergarten	16.05	14.23	12.2	11.39	10.36	3.09	3.93	71.25
Elementary	13.97	11.92	11.64	9.66	7.14	2.52	3.35	60.2
Middle	11.37	10.19	13.74	10.39	8.39	3.96	4.24	62.28
High	10.67	9.4	12.9	9.66	7.76	4.31	4.07	58.77
Special	11.9	10.4	14.5	10.5	6.4	2.9	2.7	59.3

* Source: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2018.

Table 9. Average number of executing safety education in Chungcheongbuk-do in 2017

Level	Life Safety	Traffic Safety	Prevention of Violence	Prevention of Addiction	Disaster Safety	Occupational Safety	First aid	Total
Kindergarten	17.06	14.04	12.5	11.61	10.2	2.92	3.85	72.18
Elementary	12.87	11.06	10.62	8.53	6.44	2.3	3.11	54.93
Middle	10.89	10.15	12.68	9.58	7.97	4.04	3.98	59.29
High	9.43	8.48	11.25	8.11	7.27	4.02	3.46	52.02
Special	10.8	10.3	14.4	10.5	6	3	3.9	58.9

※ Source: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2018.

전반적으로 횡수와 시간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대부분의 안전교육이 단기 또는 일회성으로 시간단위로 이루어졌음을 말해 준다. 이는 향후 안전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효과성 측면에서 일회성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의 검토가 필요하다.

2) 학교안전교육 담당자 현황

충북의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현황에 관련된 자료는 공식적인 통계는 물론 자료의 형태로 따로 정리하여 작성되지 않아 활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학교안전교육 담당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 학교 별로 직접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각 학교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충북에 소재하는 초·중·고 중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학교를 전수 조사하여 얻은 업무분장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학교 및 업데이트 미비, 잘못된 정보 등에 따른 오차의 가능성이 있으며 학교마다 조직체계나 인원 수, 업무분장 등이 상이하야 주어진 자료만으로 비교분석 하는 것은 한계가 따른다. 예로 어떤 학교에서는 생활안전부장만을 안전담당 인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생활안전부의 모든 교원을 안

전담당으로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현황분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홈페이지가 보편화됨에 따라 어느 정도 대표성 또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의 모집단은 충청북도 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로 하였으나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홈페이지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²⁾ 홈페이지 정보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누락물은 학교 급별로 상이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를 제외하고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학교는 초등학교 198개소, 중학교 109개소, 고등학교 74개소다.

2015년 12월 교육부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15.12)에 의하면 학교의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총괄하도록 각 학교에 ‘학교안전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안전책임감의 직급은 교감급 이상을 지정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감이 없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장이 겸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모든 학교의 교감 또는 교장은 ‘학교안전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안전교육 및 예방을 총괄하도록 되어있다.

각 학교에서는 학교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자 이외에 안전담당 교사를 두고 있는데 담임을 겸직하고 있는 경

2) <Reason for Exclusion>

(Unit : School, %)

	Total(ratio)	Private	Omission	Failure
Elementary	61(23,6)	30	31	0
Middle	16(14,7)	4	12	0
High	9(10,8)	1	5	3

Note 1 : Private means requiring procedures such as login

Note 2 : Omission means There were no ‘Safety’ in Roles & Responsibilities(result of 2018. 3. 3.)

Note 3 : Failure means Accessing is impossible due to technical error.

Table 10. Responsibilities of safety education teacher in Chungcheongbuk-do

	Elementary				High		
	Grade in charge	persons	Ratio		Grade in charge	persons	Ratio
Elementary	1	30	13.7	Middle	1	9	7.0
	2	30	13.7		2	16	12.4
	3	36	16.4		3	17	13.2
	4	27	12.3		Non-Homeroom	97	75.2
	5	41	18.7		Total	129	100.0
	6	33	15.1		1	8	9.4
	Non-Homeroom	22	10.0	2	7	8.2	
	Total	219	100.0	3	2	2.4	
				High	Non-Homeroom	68	80.0
					Total	85	100.0

Note 1: Number of Teachers is higher than the surveyed schools. Because some school has several teachers for Safety Education(Result of 2018. 3. 3.)

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초등학교는 안전담당 교원의 담임과 비담임 비중이 비슷한데 상급학교로 갈수록 비담임의 비중이 크다. 이는 초등교원은 담당 교과가 정해져 있지 않는데 비해 중등교원은 교과별로 교사가 있어 담임교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기인한다. 아무래도 담임과 겸직을 하는 것보다는 학교안전을 전담하는 것이 보다 업무에 충실하여 성과도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비담임의 경우도 담임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을 수도 있어 안전교육을 전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담임 중에서는 학년에 관계없이 안전담당 교원이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는 비담임의 비중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고3의 경우에는 매우 낮은데 입시에 따른 업무 부담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Table 10〉).

학교안전교육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는 가를 보기 위해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분장 상의 조직³⁾을 조사하였다. 각 학교는 학교의 성격⁴⁾, 교원 수 등에 따라 조직체계나 부서명 등이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안전교육을 어느 조직에서 맡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학교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방향 등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전교육 업무를 ‘안전교육부(안전부)’로 따로 구분하여 담당자가 배정되어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24.2%, 중학교 45.0%, 고등학교 31.0%로 조사되어 중등에 비해 초등이 낮은 비율을 보였다. 나머지 학교는 안전교육을 독립된 부서에서 담당하지 않고 다른 업무와 함께 수행되고 있었다. 안전교육을 겸하여 담당하는 부서로 가장 많은 것은 ‘생활·인성부’로 조사되었다. 중등은 안전교육 업무가 ‘안전교육부’와 ‘생활·인성부’ 두 부서로 집중되어 있고 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초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중·고등학교는 교무부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거의 없는 것에 비해 초등학교는 12.3%의 학교가 교무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부’와 ‘기타’와 더불어 ‘생활·인성부’ 다음으로 큰 비중이다. 그 외에 적지 않은 학교는 ‘체육부’에서 담당하는 등, 초등학교에서는 안전교육 담당부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Table 11〉).

안전담당교원의 특징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담당교과를 살펴보았다. 학생안전과 연관이 있는 교과담당 교사가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전문성 및 업무처리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과목별 담당교사가 구분되지 않아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3) 행정조직 직제 상의 부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의미함.

4) 초·중·고 등의 학교 급별, 인문계와 전문계고, 일반고와 특수목적고, 도시와 농·어촌 등 각 학교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징을 의미함.

Table 11. Department name of safety education teachers(persons, ratio)

	Elementary	Middle	High
Administrative Affairs	28(12,8)	0(0,0)	1(0,8)
Life · Personality	81(37,0)	56(43,4)	38(29,5)
Physical Education	14(6,4)	2(1,6)	0(0,0)
Science	8(1,4)	1(0,8)	0(0,0)
Safety(Education)	53(24,2)	58(45,0)	40(31,0)
Etc.	35(16,0)	12(9,3)	6(4,7)
Total	219(100,0)	129(100,0)	85(100,0)

Note 1: Name of department is different for each school, Categorizing similar things.

Note 2: Total means number of safety education teachers(Result of 2018. 3. 3.).

중학교에서는 체육교사가 17.1%, 과학계열과 수학 교사가 12.4%, 국어와 사회계열 교사가 11.6%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과는 지리교과와 자연재해, 사회교과의 범죄·중독·일탈 등의 사회문제, 체육교과의 운동으로 인한 사고·보건, 과학교과의 실험관련 사고 등으로 안전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안전사고와 연관이 있는 과목으로 기술·가정, 보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 직무연관성이 있는 교과의 교사가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전체 비중으로 보면 51.2%)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안전과 관련하여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수학이나 영어 등 어문계열의 교사가 맡고 있는 비중이 적지는 않았으며,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교과담당 교사의 전체 비중도 44.0%로 과반수를 넘지 못하며 고등학교가 중학교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교과별 안전교육 담당 교사의 비중을 보면 담당교과와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현행 교과이수기준에 기인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과 연관된 교과담당 교사의 안전교육담당 비율이 과반을 넘지 못하거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없는 교과담당 교사가 가장 많은 안전교육담당 비중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 외에 한문, 미술, 음악, 윤리, 제2외국어 등은 많은 수의 교사가 재직하지 않는 것에 비해 적지 않은 수가 안전교육 담당 교사로 지정된 것 등을 감안할 때, 담당교과는 안

전교육담당자 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각 학교에서는 교과이수기준에 의해 국·영·수 등의 과목 시수가 많고 이에 따라 담당교과 교사 수도 많아, 이 과목 교과담당 교사의 학교안전교육 담당이 많을 수 있다. 즉, 직무관련성 보다는 담당교과 교사수에 영향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사회, 체육과 보건 교사가 학교안전교육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직무연관성을 고려한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Table 12〉).

3) 안전교육 연수 현황

위에서 살펴본 교과의 안전교육과 연관성은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나 내용 측면에서 언급한 것이며 실제 안전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안전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은 담당교과 보다는 안전교육 자체에 대한 지식과 훈련의 양에 크게 좌우된다. 이는 담당하고 있는 교과내용 보다는 별도의 안전교육에 대한 학습과 체험으로 체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교원 및 학교관계자의 안전교육 이수를 명시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앞과 마찬가지로 총복을 표본으로 하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부의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에 대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은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안전교육 7대 영역’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5) 중학교 안전교육 담당 교사 중에서 사회계열, 체육, 과학계열, 기술·가정, 보건 등 안전과 연관성 있는 교과의 교사 비중의 합계임.

Table 12. Subjects of safety education teachers

Middle School			High School		
Subject	Persons	Ratio	Subject	Persons	Ratio
Technology and Industry Home Economics	12	9.3	Technology and Industry	6	7.1
Science	16	12.4	Science	11	12.9
Korean Language	15	11.6	Korean Language	11	12.9
Moral Education	5	3.9	Ethics	3	3.5
Fine Arts	7	5.4	Fine Arts	2	2.4
Health	1	0.8	Health	1	1.2
Social Studies	15	11.6	Social Studies	9	10.6
Mathematics	16	12.4	Mathematics	10	11.8
English	12	9.3	English	7	8.2
Music	2	1.6	Music	5	5.9
Chinese Characters and Classics	4	3.1	Languages	2	2.4
Computer	1	0.8	Career	1	1.2
Physical Education	22	17.1	Physical Education	10	11.8
Special	1	0.8	Commercial Agriculture	2	2.4
			Chinese Characters and Classics	4	4.7
Total	129	100.0	Total	84	100.0

Note: Exclude one teacher(Highschool) whose subject is unknown(Result of 2018. 3. 3.).

정규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학생활동과 관련되었다면 임시노동자도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3년 미만의 근로계약자나 직접적인 교육자가 아닌 교육활동참여자는 ‘안전교육 7대 영역’중에서 직무연관성이 있는 특정 부분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Table 13>).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은 형태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안전한 현장체 협학습을 위한 교원 안전연수’상·하반기 연2회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격으로 ‘학교안전교육 원격직무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교직원의 안전교육 연수는 원격직무연수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⁶⁾

<Table 14>는 충북교육청의 교직원 안전교육 연수 실시현황을 보여주는데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있어 총원모두 이수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 역시 연수의

Table 13. Completion standards for school safety education

School (Every Level)	Subjects		Cycle, Time	Curriculum	How to study
	Teachers				
	Contract employee	Staff	3Y, 15H	Training Courses related to 7 Areas of Safety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ining through training institutions • Education conducted after establishing the School's own plan
		3 years -			
0.5 - 3 years		0.5Y, 2H	Education related to 7 Areas of Safety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R training • Sexual harassment, prostitution, sexual violence prevention • Smoking prevention •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 Food poisoning prevention • Dust / Dust Prevention etc. 	
- 0.5 years	Autonomy				
Participants in educational activities		1Y, 1 times			

※ Source: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2018.

Note: Participants in educational activities: Cooking Staff, Gate Keeper, The Green Mother's Society, etc.

6) 활용가능한 자료로 살펴보면 2015년 전체 연수인원 중에서 75.3%가 원격으로 연수를 이수하였으며 실습이 가능한 집합교육의 형태로 이수한 교원은 24.7%에 불과했다.

Table 14. Statistics of safety education training in Chungcheongbuk-do, 2017

Level	Teachers		Staff		Contract employee		Participants in educational activities	
	Total	Compliant	Total	Compliant	Total	Compliant	Total	Compliant
Kindergarten	1,417	1,417	267	267	614	614	769	769
Elementary	5,879	5,879	1,173	1,173	1,612	1,612	8,915	8,915
Middle	3,163	3,163	495	495	1,008	1,008	1,231	1,231
High	3,485	3,485	542	542	732	732	844	844
Special	295	295	148	148	263	263	86	86

※ Source: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2018.

양적인 것만 알 수 있어 연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IV. 결론 및 정책제언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재난·사고 등에 더 많이 노출되며, 재해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교는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이며 사고에 취약한 학생이 생활한다는 점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이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효과는 평생에 걸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학교안전교육의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재난·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 학교안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교안전교육과 연관된 기관으로 ‘교육’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그리고 각 급 학교가 있으며 ‘안전’측면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 도청 및 각 시·군청과 업무연계가 이루어진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에서는 ‘학교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을 교육감이 수립하고 각 급 학교에서도 ‘학교안전사고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각 기관의 역할과 업무의 법적 근거는 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근거하고 있는데 안전교육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것은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며 교육과 관련된 법령에서 교육의 내용으로서 ‘안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학교안전사고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시간대별로는 쉬는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안전교육은 교육부가 고시한 기준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데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중에서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와 ‘생활안전’영역의 교육이 많았으며 ‘응급처치’와 ‘직업안전’영역이 상대적으로 적게 실시되었다. 그러나 안전교육 실시현황에 관계된 자료는 모두 양적인 것이며 질적인 측면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어 현황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학교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총괄하기 위해 교감급 이상을 ‘학교안전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안전담당 교원의 담임과 겸직인 경우와 전임 비중이 비슷한데 상급학교로 갈수록 전임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안전담당 교원을 별도로 배정한 학교는 중학교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초등학교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안전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생활·인성부가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에서는 교무에서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교육과 안전담당 교사의 담당과목 간에 명확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웠으나 상대적으로 중학교에서는 사회, 체육 등 연관성 있는 과목의 비중이 높은 반면 고등학교는 영어, 국어 등이 많아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

교원의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방법 중의 하나로 연수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 원격연수의 방법으로 이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을 바탕으로 학교안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안전교육과 관계된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학교안전교육과 관계된 법률은 주로 공간적 의미의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서 안전교육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법률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법에 근거한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지역차원에서도 법률적 정비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학생안전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지역은 물론 기 제정된 지역도 지속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학교안전교육의 가장 기초단위인 학교단위에서 안전과 관계된 사항들을 세부규칙으로 정하여 교내에 게시하고 준수토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안전교육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 ‘안전’ ‘교육’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안전교육은 다양한 영역과 연관되어 있고 각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운영 및 관리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안전의 대상이 학생이라는 점에서는 교육기관과 관련이 깊고 안전사고의 원인과 영향이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는 일반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관련기관 간에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업무의 중복 및 공백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학교안전교육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교육부, 행정안전부는 물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기관과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기관 내에서도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한데 위에서 ‘시·군교육지원청’의 경우 각 기관 자율적으로 안전교육 담당업무가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갖고 업무분장을 하는 것도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업무 경계의 모호로 비효율성의 가능성도 내재됨으로 큰 틀에서 조직 내의 안전교육 총괄부서나 전반적인 업무분담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각 급 학교의 안전담당 교사에 대해서도 우선순위, 자격 등에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안전대처 능력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안전교육의 전문성 함양 및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교사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 및 지식이 교사연수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교사연수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론 중심의 원격교육 보다는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사고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여 관계된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교통, 가스, 전기, 건설 등 안전사고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다양한 기관이 설립되어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교육수요자 창출과 예산절감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용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평가·환류체계를 위한 안전교육 통계 정비 및 DB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안전사고 또는 학교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통계는 기초적인 양적수준을 알 수 있는 통계를 제외하곤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통계로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안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단순히 몇 회 교육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양적통계에서 벗어나 어떤 내용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누가 교육했는가에 대한 질적 수준을 나타내줄 통계가 필요하다. 필요한 통계종류 및 작성방법 선정을 위해서 업무담당자 이외에 관련분야 학계와 통계전문가 등이 모여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성된 통계는 일회성이 아닌 DB구축을 통한 자료축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안전교육은 현재 교육부가 고시한 ‘7대 안전영역’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므로 통계도 이의 구분에 맞추어 집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다섯째, 안전교육 관련기관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 앞서도 수차례 언급되었듯이 ‘안전’은 매우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으며 학교에서의 교육이 더해진 ‘학교안전교육’은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효율적 운영은 물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관련기관 간의 협의

체 구성을 통한 협조가 필요하다. 최근 사회적으로 높아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으로 인해 안전과 관련된 각종 기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⁷⁾. 그러나 대부분 안전관리에 대한 협의체이며 안전교육에 대한 협의체의 구성 및 활동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학교안전교육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초기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관련 연구 및 자료의 제약이 많아 현황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Chae, Jin. 2017. A Study on the Safety Culture in Korea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Crisisonomy*. 13(8): 1-16.

Cho, In Sik and Pil Woon Jung. 2015. A Critical Analysis of Safety Education in School.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8(2): 43-64.

Choi, In Bum and Sun Ho Jeon. 1998.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Actual Condition of Schoo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afety Education*. 2(1): 25-39.

Han, Chang Hee. 2014. Sewol Ferry Accident and School Safety Education. *Journal of Claim Adjustment*. 6(2): 91-122.

Jung, Gun Hee, Deok Hun Jung, Dae Soon Choi, Jun Young Yoon, and Seung Jun Lee. 2014. Analysis and Comparison of Disaster and Safety Education Contents in Developed Countries and South Korea.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395.

Kim, Jong Se. 2015.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about the School Safety Education. *Han Yang Association for Legal Studies*. 26(2): 121-141.

Kim, Won Gap. 1980. The Occurrence of a Safety accident and Economic Loss.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5(1): 5-16.

Kwon, Bong An, Jong Ku Kim, and Chun Ja Choi. 1985. A Study of Need in Sports Safety Education. *Paper of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Physical Education. 8: 331-447.

Lee, Jae Eun. 2002. A Comparative Study of Natural Disaster Management Policy and Man-made Disaster Management Policy: Measuring Prioritie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6(2): 165-185.

Oh, Min Suk. 2017. Hands-on Safety Education for Children through Regional Coordin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Ohmachi Elementary School in Niigata Prefecture. *Korean Journal of the Japan Education*. 21(2): 45-72.

Oh, Ok Sun and Jae Eun Lee. 2010.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raffic Safety Education for Children. *Crisisonomy*. 2(2): 80-103.

Park, Young Chul. 1998. A Legal Consideration on Physical Activity and Safety Accident.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afety Education*. 2(1): 121-130.

Sim, Min Su. 2015. A Study on Safety and Disaster Preventing Education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Implications of the Elementary Social Studies of Japan. *Social Studies Education*. 54(3): 53-67.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권봉안, 김종구, 최춘자. 1985. 스포츠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집*. 8: 331-347.

김원갑. 1980. 안전사고의 발생과 경제적 손실. *산연논총*. 5(1): 5-16.

김종세. 2015. 현행법상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26(2): 121-141.

박영철. 1998. 체육활동과 안전사고에 관한 법적고찰. *한국안전교육학회지*. 2(1): 121-130.

심민수. 2015. 초등학교 사회과에서의 안전·방재교육의 탐색. *사회과교육*. 54(3): 53-67.

오민석. 2017. 지역 연계를 통한 체험형 아동 안전교육 활동 - 니가타현 오마치 초등학교를 사례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1(2): 45-72.

오옥순, 이재은. 2010.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 분석. *국가위기관리학회보*. 2(2): 80-103.

7) 충북의 경우 도청에서 운영하는 안전과 관련된 협의체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안전현장관찰단’, ‘안전정책실 무조정위원회’ 등이 있음.

- 이재은. 2002.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 관리정책과 인위재난 관리정책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36(2): 165-185.
- 정건희, 정덕훈, 최대순, 윤준영, 이승준. 2014.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교육현황 분석 및 비교.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395.
- 조인식, 정필운. 2015. 학교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비판적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8(2): 43-64.
- 채진. 2017. 세월호 침몰 재난 이후 한국의 안전문화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13(8): 1-16.
- 최인범, 전순호. 1998. 학교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학교안전교육학회지. 2(1): 25-39.
- 한창희. 2014. 세월호사고와 학교안전교육. 손해사정연구. 6(2): 91-122.

Received: Jun. 26, 2018 / Revised: Jul. 20, 2018 / Accepted: Jul. 26, 2018

학교안전교육 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안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법률은 주로 공간적 의미에서 ‘사고의 대처 및 보상’이 주된 내용이며, 광역교육청은 안전교육담당 부서가 따로 있는 것에 비해 기초지자체의 교육지원청은 업무별로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충북을 중심으로 살펴 본 실태조사에서 초등학교는 ‘학교안전책임관’이 담임과 겸직인 경우와 전담 비율이 비슷하며, 상급학교로 갈수록 전담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안전담당 교원을 별도로 배정한 학교는 중학교가 가장 많고, 초등학교가 가장 적었다. 학교안전의 담당부서는 주로 생활·인성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안전책임관’의 담당과목은 중학교는 사회, 체육, 고교는 영어, 수학, 국어 등이 많았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안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법률적 정비, 거버넌스 구축, 전문성 함양 및 역량강화, 통계 정비 및 DB구축, 관련기관 협의체 구축 등을 개선과제로 제안하였다.

주제어 : 안전교육, 학교교육, 재난, 교사연수

Profiles **Taek Hee Cho** : He received his Ph. D. fro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He is currently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ince 2012. he served as a Senior Research Engineer in Chungbuk Development Institute, and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t Seowon University. He has published a number of papers about International Economics and Regional Economics. His current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is Economic Education and Safety Education(choth@cbnu.ac.kr).

Min Ki Bae : He is currently working as a research fellow at Chungbuk Research Institute and head of the Chungbuk Disaster and Safety Research Institute. He is interested in research topics such as climate change, urban safety, and forest recreation. He is currently carrying out research projects related to disaster safety policy,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particulate matter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mkbae@cri.re.kr).